

洪錫律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6·10만세운동 서술 연구

2009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崔恩珠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6·10만세운동 서술 연구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崔 恩 珠

認 准 書

崔恩珠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논문개요

6·10만세운동은 사전에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구파의 계획이 발각된 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은 현행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타나있다. 즉 6·10만세운동을 학생운동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6·10만세운동의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1920년대 중반 한국 민족운동계의 지향은 민족통일전선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이건 간에 민족운동세력의 공통된 요구였고,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정책, 중국의 국공합작, 자치운동의 등장은 민족통일전선의 기운을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민족통일전선의 실천으로서 이후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창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 6·10만세운동이 학생운동의 범주에서 주로 다뤄진 것은 1960년대 들어와서이다. 이전까지는 남과 북 모두 6·10만세운동을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고 민족통일전선의 형태로 전개한 운동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던 것이 남북분단이 고착되면서 반공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6·10만세운동을 ‘민족주의’적 학생운동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계속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연구되다가 1990년대 이후 추진주체들의 연대를 중시하는 연구 성과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각 주체들의 연대양상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민족통일전선체로서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창립과 관련짓는 연구 성과들이 나왔다.

현재 7차 교육과정 국정(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 검정(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학계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

용 선정 및 서술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6·10만세운동의 주요한 추진배경인 자치운동에 대한 서술이 생략되어 있거나 내용이 부족하다. 둘째,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의 결합양상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거나 왜곡된 서술을 하고 있다. 셋째, 6·10만세운동의 이념과 역사적 의의를 학생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제시하는 학습목표에 6·10만세운동을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6·10만세운동에 대해 학습할 때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하여 본연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학습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따라서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에 대해 유기적으로 설명해야하며 운동의 추진세력과 이념을 종합적으로 서술해야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만이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6·10만세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4
1.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	5
2. 추진세력과 전개과정	9
3. 이념과 의의	12
III. 6·10만세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6
1.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과 6·10만세운동	16
2. 추진세력과 이념문제	20
3. 민족운동사적 의의와 역사교육	29
IV. 결 론	37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6·10만세운동은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공산당, 천도교 구파,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연합하여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을 기해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다. 이들 주체들은 1920년대 초반의 역사적 흐름에 조응해서 좌·우 세력의 연합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즉 6·10만세운동은 민족통일전선¹⁾의 실천으로서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창립 기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개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구파²⁾의 계획이 사전 발각된 이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6·10만세운동을 단순히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³⁾ 이러한 관

-
- 1) 다양한 이념적 편차를 갖는 민족 독립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려는 활동을 민족통일전선운동 또는 민족협동전선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에서 끊임없이 추진된 활동의 하나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민족통일전선운동은 계급적 이해, 정치적 이념, 세계관 등의 차이점을 가진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울아카데미, 2007, 394쪽)
 - 2) 3·1운동 이후 천도교 진영은 교단의 운영권과 함께 개량국면의 분위기에서 세력 간에 정치적 차이를 보이다가 1925년 4월 이래 교주문제를 놓고 내분이 표면화되어 결국 1926년 1월에 이르러서 완전히 신파와 구파로 분화되고 말았다. 이때 구파는 권동진, 이종린을 축으로 하는 세력으로 자치운동에 반대하며 민족의 연합을 주장하였고 신파는 최린, 정광조를 축으로 하는 세력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자치운동을 벌였다.(장석홍, 「천도교 구파의 6·10만세운동」, 『북악사론』 제4집, 국민대 국사학과, 1997. 8, 278-283쪽)
 - 3) 식민지 시기의 학생은 아동에서부터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했으며 당시의 지식층에 속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6·10만세운동을 파악할 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일면적인 학생운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층으로서의 학생운동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6·10만세운동을 단순한 학생운동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본고의 논지는 단순한 학생들만의 운동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대표되는 지식층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한 다양한 지식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점은 현행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대부분 6·10만세운동을 학생운동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6·10만세운동 연구는 해방공간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역할이 강조되는 인식을 보여 왔으나 체제와 분량에서 전문 연구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⁴⁾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지만 조선공산당, 천도교 세력,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통동계 등 다양한 주체세력들의 연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생 운동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에는 6·10만세운동을 주로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⁶⁾ 그 가운데 6·10만세운동을 조선공산당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 성과가 나왔으나 총체적인 이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⁷⁾

1990년대에는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등장했다. 신일철은 사회주의운동 계열과 학생운동 계열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다 발전된 연구시각을 제기하였고⁸⁾ 김호일은 학생운동의 관점을 보다 강조하였다.⁹⁾ 표영삼은 6·10만세운동 주체의 하나였던 천도교 계열의 운동을 살펴보았다.¹⁰⁾ 장석홍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조직 성격 및 6·10만세운동

4) 전석담, 「6·10운동소사」, 『주보 민주주의』 제 22호, 1947년 7월

5)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정음사, 1974

이현희, 「6·10독립만세운동고」, 『아세아연구』 12권 1호,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6)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독립운동사』, 정음사, 1974

김호일, 「학생운동」,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78

정세현, 「6·10만세운동」, 『한국근대사론』 2, 지식산업사, 1979

7) 김준엽·김창순, 「제2차조선공산당과 6·10만세운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권,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986년 청계연구소 재발행.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10항일시위운동」, 『역사비평』, 1989년 봄호

8) 신일철, 「6·10만세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9) 김호일, 「일제하'6·10학생운동'고」, 『윤병상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론』, 지식산업사, 1990

10) 표영삼, 「6.10만세와 천도교」(상·하), 『신인간』 510·511호, 1992

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며 종래 분리 이해되어 온 조선과학연구회와 조선공산당, 통동계 주체들의 연대를 밝히고 있다.¹¹⁾

최근에는 장석홍을 중심으로 추진 주체들의 연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6·10만세운동이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¹²⁾ 장석홍의 연구는 6·10만세운동이 발생하게 된 추진배경과 추진주체들의 결합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6·10만세운동이 1920년대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려는 민족유일당 및 신간회 운동과 갖는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6·10만세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정확성 여부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나온 장석홍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 국정 2종과 검정 6종 교과서의 6·10만세운동 서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6·10만세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치운동의 등장을 중심으로 6·10만세운동의 추진 배경이 되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계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며 6·10만세운동 추진세력의 결합양상과 그 이념을 제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들이 위의 요소들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 교과서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과서 서술의 개선 방향과 수정 7차 교육과정의 흐름에 부응하는 교수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장석홍,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10만세운동」, 『독립운동사연구』 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12) 장석홍,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국사관논총』 90집, 2000. 6

장석홍, 「6·10만세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순국』 113호, 2000. 6

장석홍, 「통일전선운동의 첫 제작인 6·10만세운동의 역사상을 바로 세우자」, 『내일을 여는 역사』 제2호, 2003. 봄

장석홍, 「1920년대 후반 국내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의 역할」, 『역사』 18호

II. 6·10만세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의 국정 교과서(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한국근·현대사 6종)의 출판사와 집필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표 1]에 제시된 약칭으로 각 교과서를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지자	출판년도	약칭
중·고등학교 국사 (국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국사편찬위원회	2008	중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국사편찬위원회	2008	고등학교 국사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검정)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주진오 외 4인	2008	중앙
	천재교육	김홍수 외 5인	2008	천재
	두산	김광남 외 4인	2008	두산
	금성출판사	김한중 외 5인	2008	금성
	대한교과서	한철호 외 5인	2008	대한
	법문사	김중수 외 3인	2008	법문사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6·10만세운동 서술에 대한 단위 편제¹³⁾는 [표 2] 같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에 관해 소제목으로 편제하여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광주학생운동과 연계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3) 고등학교 국사는 분류사로 교과서 내용이 편제되어 있다.

[표 2]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단위 편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소제목
국정	중학교 국사	IX. 민족의 독립 운동	4. 국내의 민족운동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6·10만세운동”
	고등학교 국사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5. 근·현대의 정치	3) 민족의 수난과 항일민족운동	“국내의 항일 민족운동”
검정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III.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국내 항일 민족운동”	“6·10만세운동”

6·10만세운동 관련 서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6·10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배경과 원인이며, 두 번째는 추진세력과 전개 과정, 마지막으로 6·10만세운동의 이념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1.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

7차 교육과정의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는 대부분 6·10만세운동을 서술하기에 앞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10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에서 나타난 3가지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실력양성운동의 전개와 노동·농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전개, 둘째는 자치운동의 등장, 마지막으로 항일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이다.

1차 세계대전 종결 이 후 독립을 기대했던 일부 민족세력은 세계정세의 재편과정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자 직접 독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선 실력양성 후 독립론’을 바탕으로 실력양성운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볼셰비키 세력의 약소민족해방운동 지원 약속으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는 각종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로써 국내 민족운동전선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¹⁴⁾을 중심으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는 민족주의세력과 노동·농민운동 등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주의세력으로 분화되었다.¹⁵⁾ 그런데 실력양성운동은 구조상으로 일제 권력에 타협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¹⁶⁾ 따라서 일부 실력양성론자들 사이에서는 일제와의 타협을 모색하는 자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치론의 등장은 국내 민족운동 세력을 타협적 운동과 비타협적 운동으로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⁷⁾ 이 때 비타협적 세력은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으로 이들은 자치운동을 반대하였다. 즉 비타협적 세력의 연합전선은 자치운동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당시의 일반적인 위기의식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이

14)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2년 6월 조선교육령에 따라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세워질 일제의 관립대학에 대항하여 민립대학을 세우기 위해 일어났다. 민립대학설립운동에는 교육계·언론계·종교계·실업계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총독부의 분산정책 및 제재와 함께 지도부의 능력 부재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지 못함으로써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명화,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집, 1991, 32-35쪽)

15) 한국근현대사학회, 앞의 책, 402쪽

16) 민족주의세력의 실력양성론은 논리적으로 정치적 실력양성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1924년 이후 이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식민지 자치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의 정치적 훈련을 쌓아 장래 민족운동의 단계로 나아가자는 자치론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독립을 먼 장래의 일로 넘겼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독립투쟁을 포기한 것이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앞의 책, 354쪽)

17) 장석홍, 『6·10만세운동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995, 31쪽

다.¹⁸⁾

실력양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따른 민족운동의 발전·분화에 대한 부분은 중학교 국사, 금성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본문 앞에 서술하였다.¹⁹⁾ 단, 두산 교과서는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민족운동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짐으로써 그 진로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간단하게 민족운동의 분열 모습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자치운동의 등장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국사, 법문사, 천재, 중앙 교과서가 본문 앞에 설명하고 있다.²⁰⁾ 법문사 교과서는 일부 인사들이 자치권,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주장하는 개량주의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천재와 중앙 교과서는 자치권을 얻기 위한 민족 개량주의자들의 등장으로 절대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세력은 사회주의세력과 연합을 도모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어 내용에 질적 풍부함을 부여했다.²¹⁾ 그러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실력양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자치운동의 등장을 신간회 결성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간회 결성에 대한 서술 이후 학생운동의 발전으

18) 안재홍은 당시의 정세를 좌경과 우경의 양분구도로써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을 좌·우익의 구분을 타협과 비타협의 기준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좌익의 범주에는 사회주의운동 세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김인식, 「식민지시기 안재홍의 좌익 민족주의운동론」, 『백산학보』 43호, 1994, 171쪽)

19)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6·10만세운동 본문 이전에 민족실력양성운동의 이름으로 민족주의 세력의 운동만 소개하고 있고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운동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 금성 교과서는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에서 “민족실력양성운동”과 “민족협동전선운동”에서 단원을 나누어 민족주의·사회주의 세력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다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도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에서 “사회적 민족운동의 전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의 소단원에서 본문의 내용과 별도로 민족주의·사회주의 세력의 운동을 각기 설명하고 있다.)

20) 금성 교과서는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중 소단원 “민족실력양성운동”에서 자치운동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치운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21)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자치운동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며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는 자치운동에 대한 내용을 중단원 “4. 사회·경제적 운동” 중 소단원 “민족유일당운동”에서 6·10만세운동과는 관련 없이 자치운동 등장에 따라 민족연합전선이 형성되어 신간회가 결성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로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6·10만세운동의 배경을 학생운동의 동향에만 연관 짓고 있다.²²⁾

학생들은 3·1운동 이후 학생단체의 조직, 문화·계몽운동의 전개, 학원 내에서의 동맹휴학 결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갔다. 즉 좁게는 학원 내에서의 문제, 넓게는 식민지 교육, 총독정치에 대항하고 근대화의 추진에 노력하면서 민족운동을 추진시켜왔던 것이다.²³⁾ 그러나 민족주의세력이 갖는 논리의 한계로 인해 학생층 사이에서 민족주의세력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되었고 그 공백을 사회주의가 채워갔다. 이와 같이 3·1운동 이후 항일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로 주목할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 유포·확산되었다는 점이다.²⁴⁾

이러한 항일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천재 교과서가 유일하다. 천재 교과서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에 대해 조선학생과학연구회²⁵⁾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이 활성화되고 조직도 다양화되었다. 1920년 5월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망라된 조선 학생 대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교양·계몽적 성격을 띤 전국적 규모의 단체였다. 이외에 경성 학생 연맹, 서울 학생 구락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등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 단체들도 조직되었다.²⁶⁾

또한 천재 교과서는 이들 학생단체가 일반 사회주의 인사들과 연계해 학생운동을 선도해 나갔다고 잘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두산, 중앙, 금성 교과서는

2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8, 19쪽

23) 김호일, 위의 책, 110쪽

24) 홍석률, 「일제강점기 항일학생운동의 이념 변화」, 『나라사랑 독립정신』, 2005, 260-261쪽

25)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5년 9월 27일 서울에서 전문학생, 고보생 70여 명이 사회주의 사상의 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였다. 이 단체는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사회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인식하고 항일의식을 키워가던 진보적 학생들의 운동 조직이었다. (장석홍, 앞의 논문, 1994, 311쪽)

26)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8, 195쪽

학생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다만 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 법문사, 대한 교과서가 3·1운동 이후의 계몽운동과 동맹휴학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발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는 모두 실력양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전개, 자치운동의 등장,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에 대해 저마다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교과서는 위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포함하고 있어도 다른 단원에서 다루고 있거나 그 내용이 미흡하였다. 유일하게 천재 교과서만이 본문 서술 전에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추진세력과 전개과정

7차 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의 전개를 추진세력과 결합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제각기 달랐다. 내용 선정에 따라 교과서를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²⁷⁾ 그리고 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운동을 계획했다고 서술하는 방식이다. 둘째,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서술 없이 학생 단체와 사회주의세력이 각기 따로 운동을 계획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언급 없이 학생단체에 의해서만 운동이 계획되고 전개되었다고 서술하는 경우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표 3] 과 같다.

[표 3]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과 결합양상에 대한 서술 비교

27) 추진세력을 서술할 때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표현은 각 교과서마다 다르다. 대한 교과서의 경우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 천도교 단체라 표현하였고, 천재 교과서의 경우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세력, 중앙 교과서의 경우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금성의 경우 단지 일부 민족운동단체라 표현하였다.

추진세력	교과서	결합양상
①사회주의세력+ 민족주의세력+ 학생	고 등 학 교 국사	학생 중심으로 민족운동세력과 연대
	천재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천도교, 사회주의, 노동자 단체, 학생단체 연대
	대한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천도교 세력과 연대
	중앙	사회주의자 계획, 민족주의자 지원, 학생단체 연계
	금성	일부민족운동단체와 학생단체 연대
②학생, 사회주의세력	법문사	학생단체와 사회주의세력 각기 별도로 운동 계획
	두산	
③학생	중학교 국사	.

첫 번째 결합양상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사, 중앙, 대한, 천재, 금성 교과서로 결합양상에 대한 서술은 조금씩 달랐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민족운동세력과 연결되어 운동을 주도했다고 서술해 학생중심의 운동이라고 표현하였다. 중앙 교과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계획하고 민족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학생 단체와 연계하여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서술하여 주체들의 결합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한 교과서는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천도교 단체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 노동자단체, 학생단체 등이 연대하였다고 서술했다. 천재 교과서는 학생단체가 조선공산당 및 천도교 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운동을 계획하였다고 서술해

학생 중심으로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단체를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학교 학생들, 중앙고보와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립 중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서술하였다. 금성 교과서는 일부 민족운동단체와 학생들이 연대하여 운동을 계획했다고 서술하였다. 일부 민족운동 단체라는 표현으로 결합세력을 모호하게 표현하였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언급하여 학생단체를 서술하였다.²⁸⁾

두산, 법문사 교과서가 두 번째 결합양상에 해당하는데 두산 교과서는 전문학교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 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직, 사회주의 계열이 각각 별도로 시위를 계획했다고 서술하였다. 법문사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은 학생들의 움직임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세력의 계획을 별도로 표현하였다.²⁹⁾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하며 학생이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⁰⁾

연대세력 중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된 이후 일제의 검거망을 피한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운동을 추진해 갔다. 그리하여 인산 당일에 만세시위는 학생들에 의해 서울의 여덟 곳에서 거행되었다. 이때 참여한 학생의 수는 5, 6백여 명에 이르렀고 당일에 체포된 학생도 2백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만세시위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한 중에도 지방의 시위운동은 산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일어난

2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쪽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8, 199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8, 168쪽

김홍수 외, 앞의 책, 195쪽

29)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8, 179쪽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8, 176쪽

30)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286쪽

만세시위나 동맹휴교, 태극기 게양, 망곡, 봉도 등의 형태로 항일 민족의식을 표출하였다.³¹⁾ 지방의 시위운동에 대해서는 대한, 중앙, 두산 교과서만이 서술하고 있다.

3. 이념과 의의

국정 교과서 2종(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을 제외한 검정 교과서 6종(두산, 법문사, 천재, 중앙, 대한, 금성)은 6·10만세운동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 6·10만세운동의 격문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소개하고 있는 격문의 종류나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제각기 달랐다. 각 교과서가 수록하고 있는 격문은 [표 4] 와 같다.

[표 4] 6·10만세운동의 격문에 대한 서술 비교

교과서		격문	
		격문 종류	격문 설명 방법
검정	천재	대한독립당 격문 · 전단	학생운동에 초점
	대한	대한독립당 격문 · 전단	3·1운동과 비교, 192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상황과 연결
	중앙	대한독립당 격문 · 전단, 통동계 격문	3·1운동과 비교
	금성	통동계 격문	3·1운동과 비교
	법문사	대한독립당 격문 · 전단	학생운동에 초점
	두산	통동계 격문	학생운동에 초점

중앙 교과서의 경우 애초 6·10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세

31) 장석홍, 앞의 논문, 「6·10만세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2000, 93-96쪽

력이 작성한 대한독립당³²⁾의 격문과 전단,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통동계³³⁾의 격문을 소개하였고 대한, 천재, 법문사 교과서는 대한독립당의 격문과 통동계의 격문을, 두산과 금성 교과서는 통동계의 격문만을 소개하였다.

또한 설명 방법에 따라 교과서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격문을 학생 중심의 운동에 초점을 맞춰 소개한 교과서(두산, 법문사, 천재³⁴⁾)이고 다른 하나는 3·1운동과 비교해 격문을 분석하도록 구성한 교과서(중앙, 대한, 금성³⁵⁾)이다.

두산과 법문사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의 격문을 광주학생운동의 격문과 함께 소개하면서 학생중심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천재 교과서는 <역사자료실>에서 “6·10만세운동의 성격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격문을 소개하면서 6·10만세운동은 학생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된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중앙, 대한 교과서는 3·1운동과 비교하면

32) 대한독립당은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세력이 6·10만세운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민족 세력의 연합체로서 결성한 것이다. 즉 ‘대한독립당’은 만세운동의 지도체로서, ‘종교계·사회주의·민족주의·학생·청년’ 등의 세력을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체였다. 그러나 대한독립당의 실천적 역할은 만세운동 계획의 사전 발각과 더불어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6·10만세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성립된 대한 독립당은 민족통일전선의 실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장석홍, 위의 논문, 90쪽)

33) ‘통동계(通洞系)’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같이 운동조직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아닌 항우·교우적 기반에 의해 이루어진 소규모의 학생 집단이었다. 5, 6명 정도에 불과한 규모로, 중앙고보와 중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뚜렷한 조직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 명칭도 거사를 계획했던 곳인 통동의 이름을 따서 통동계라 가리켜 왔다. 이들은 조선공산당·천도교·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이 계획 단계부터 일정하게 연대를 이루며 만세시위를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운동을 계획하고 격문을 인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전개해 갔다.(장석홍, 위의 논문,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2000, 58쪽)

34) 김광남 외, 앞의 책, 181쪽
김종수 외, 앞의 책, 177, 179쪽

김홍수 외, 앞의 책, 196쪽

35) 주진오 외, 앞의 책, 199쪽
한철호 외, 앞의 책, 169쪽
김한중 외, 앞의 책, 183쪽

서 격문을 소개하고 있고 특히 대한 교과서는 <탐구활동>에서 대한독립당의 격문을 통해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대립 속에서 전개된 6·10만세운동의 의미를 설명하게 하여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과 연결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금성 교과서는 <생각열기>에서 통동계의 격문을 소개하면서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 중앙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의 성격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법문사, 대한 교과서³⁶⁾는 6·10만세운동은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천재, 금성 교과서³⁷⁾는 6·10만세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민족운동의 중심적인 위치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두산 교과서는 유일하게 민족통일전선상에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6·10만세운동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 당면 과제로 부상한 민족유일당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³⁸⁾

또한 모든 교과서는 학습목표(혹은 학습의 주안점, 단원열기)를 통해 6·10만세운동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금성 교과서를 제외한³⁹⁾ 모든 교과서는 학습목표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6·10만세운동이 전개되었

36)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86쪽

김중수 외, 위의 책, 177쪽

한철호 외, 위의 책, 169쪽

37) 김홍수 외, 앞의 책, 195쪽

김한중 외, 앞의 책, 183쪽

38) 김광남 외, 앞의 책, 180쪽

39) 금성 교과서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중국에서 일어난 독립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김한중 외, 앞의 책, 182쪽)

음을 파악한다.”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⁴⁰⁾ 이는 학생들에게 선입견을 심어 주어 학생들의 학습 시야를 제한시킬 수 있는 서술방식이다.

40) 국사편찬위원회(중학교 국사), 앞의 책, 282쪽
국사편찬위원회(고등학교 국사), 앞의 책, 19쪽
주진오 외, 앞의 책, 196쪽
김홍수 외, 앞의 책, 194쪽
김광남 외, 앞의 책, 178쪽
김한중 외, 앞의 책, 183쪽
한철호 외, 앞의 책, 168쪽
김중수 외, 앞의 책, 176쪽

Ⅲ. 6·10만세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과 6·10만세운동

자치론은 '실력양성론'과 민족자본상층의 성장이 벽에 부딪히는 가운데 일부 실력양성론자들이 일제와의 '정치적 타협'의 길로 들어서고, 민족자본 가운데 대자본이 일제권력과 밀착하면서 예속자본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대두하였다.⁴¹⁾ 이는 1924년 1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동아일보에 발표되면서 표면화되었다.⁴²⁾ 자치론에 대한 경계와 우려로 비타협 민족주의세력은 사회주의세력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천도교 구파 이종린은 자치론에 대항하는 비타협 정치노선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세력인 강달영에게 연대를 제의하였다. 하지만 이종린의 제의는 아직 사회주의 진영에서 전위당(前衛黨)을 건설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구체적 실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1925년 말부터 자치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족운동세력 사이에 쟁점화 되자 천도교 구파와 조선공산당⁴³⁾은 통일전선을 구체화시켜 나갔다.⁴⁴⁾ 즉 조선공산당은 당시

41) 1923년 11월경부터 '정치적 권리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 중심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시기는 물산장려운동이 한계에 부딪혀 이미 침체상태로 접어든 때였다. 즉 물산장려운동이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민족자본은 총독부측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 일제권력과 유착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시기에 이와 같은 타협적인 자치운동론이 등장한 것이다. (박찬승, 「일제하의 자치운동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1989, 179, 188쪽)

42) 「민족적 경륜」의 요지는 정치적 결사는 전 조선민이 중심세력이 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민중이 필요하고, 그 민중의 바탕을 농민에게서 구한다는 것, 그 농민은 산업적 결사의 바탕이 되는 거액의 자금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삼대 결사는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에서 이 삼대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민족적 경륜」은 자치론이 대두되는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운동의 움직임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일단 가라앉았다. (장석홍, 앞의 논문, 『6·10만세운동연구』, 1995, 32쪽)

코민테른의 지시,⁴⁵⁾ 중국의 국공합작의 영향 속에서 자치운동이 본격화되자 민족통일의 유일당인 ‘국민당’을 조직할 구상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1926년 3월 10일 강달영, 유억겸, 안재홍, 박동완, 이종린, 신석우, 오상준, 권동진 등 8명이 모여 민족, 사회 양 주의자 사이에 통일전선형성에 합의를 보았다. 이후 이들은 연대를 형성하면서 1926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시위⁴⁶⁾를 계획해 갔다. 그런데 4월 25일 순종이 죽자 이들은 이때를 제2의 3·1운동과 같은 전민족적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6·10만세운동을 계획해 갔다. 즉 메이데이 기념시위를 벌이려던 계획이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만세운동의 방법으로 전환되어갔던 것이다.⁴⁷⁾

6·10만세운동에서 추진배경은 이처럼 실력양성운동·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 자치운동의 등장을 계기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실력양성운동·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은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피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서 교과서에 꼭 서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어야 6·10만세운동이 사건 위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진정한 의미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치운동의 등장은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는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게 해준다.

43) 11월 25일 신의주사건으로 제1차 조선공산당이 와해된 이후 화요회를 중심으로 12월 중순 강달영을 책임비서로 하는 제2차 조선공산당이, 권오설을 책임비서로 하는 2차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되었다.(한국근현대사학회, 앞의 책, 375-376쪽)

44) 장석홍, 앞의 논문,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2000, 284-290쪽

45) 코민테른은 1925년 <조선 문제에 대한 의정서>라는 통일전선의 형태에 대한 지침을 조선공산당에 내렸다. 그것은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민족적 혁명당을 건설할 것」과 「이 임무는 공산당의 명의로 할 필요가 없는 조선의 독립획득이라는 슬로건 밑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시한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이 조직된 1925년 4월 이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 계급적 전술은 코민테른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이균영,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권, 1994, 421쪽)

46) 메이데이 기념시위는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구과세력이 연대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계급적 반제시위로 계획되었다.(장석홍, 앞의 논문, 1995, 109쪽)

47) 장석홍, 위의 논문, 308쪽

그리고 그것은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이 전환되는 변화의 요인인 동시에 6·10만세운동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실력양성운동·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1920년대 초반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과 자치운동의 등장에 대한 내용을 계기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국사, 금성 교과서는 본문 이전에 실력양성운동·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과 자치운동의 등장을 모두 언급하지 않아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⁴⁸⁾ 또한 6·10만세운동이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단순한 민족적 감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해하게 함으로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대한, 두산 교과서는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분화에 대한 내용만을 서술했다. 특히 대한 교과서는 실력양성운동에 대한 언급 없이 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고만 서술해 민족주의세력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두산교과서는 사회주의 유입에 의해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분열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다.

법문사, 천재, 중앙 교과서는 실력양성운동·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과 자치운동의 등장을 모두 서술하고 있어 역사적 흐름 속에서 6·10만세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단법문사 교과서는 자치운동의 등장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미흡하였다.

실력양성론의 한계로 학생층에게 대안적 이념으로 관심을 끈 것은 사회주의 이념이었다. 사회주의의 보급은 지식인들의 사상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48) 중학교 국사 교과서가 본문 이전에 실력양성운동에 대해 서술하지만 6·10만세운동과 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금성교과서도 다른 단원에서 서술함으로서 이원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1920년대 중반 학생들 사이에도 이러한 사상단체가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하였다. 1925년 5월 최초의 사회주의적 학생단체라 할 수 있는 조선공학회가 결성되는 것을 필두로 경성학생연맹, 서울학생구락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이 조직되었다.⁴⁹⁾ 이들 단체 중에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단체는 1925년 9월 결성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였다. 이들 사회주의적 학생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활동은 1926년 6·10만세운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⁵⁰⁾ 특히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 중 하나로서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운동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해가는 이념적 변화는 6·10만세운동의 주체세력 중에 하나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서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을 서술하기에 앞서 6·10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학생운동의 발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의 사회주의로의 이념적 변화와 다양한 학생조직이 등장했음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과 연결되는 합리적인 설명을 위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학생운동의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⁵¹⁾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인 학생들의 동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천재 교과서만이 위와 같이 서술했으며 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⁵²⁾ 법문사, 대한 교과서가 계몽운동과 동맹휴학을 중심으

49) 사회주의적 학생단체들은 기성인들이 만든 사상단체와 긴밀한 연관 하에서 활동했다.

50) 홍석률, 앞의 논문, 261-262쪽

51) 192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간 중 학생들의 항일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였다.(김호일, 앞의 책, 102쪽)

52)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6·10만세운동 서술 전에 신간회 결성에 대해 먼저 서술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는 두 사건의 순서를 바꿔 설명함으로써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으며 내용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로 한 학생운동의 발전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에 대한 서술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서 1920년대 중반 학생운동의 흐름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두산, 중앙, 금성 교과서는 학생운동에 대한 설명이 없어 1920년대 학생운동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종합적으로 교과서는 실력양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를 설명하고 민족통일전선의 직접적 원인인 자치운동의 등장을 계기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의 이념적 변화 과정을 서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운동을 계획하게 되는 배경이나 경로를 유기적으로 서술해야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천재 교과서만이 위에서 지적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 추진세력과 이념문제

6·10만세운동은 1926년 4월 25일 순종이 승하한 후 6월 10일 인산일에 제2의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가 천도교 구파, 조선노동총동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해 간 운동이다. 조선공산당은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을 총책임자로 ‘6·10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⁵³⁾ 그리고 만세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해 당시 조직 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천도교 구파 세력이 동원되었다.⁵⁴⁾ 이에 따라 천도교 구파는 격문 인쇄와 지방 조직의

53) 권오설을 책임자로 고려공산청년회가 주도하는 전술은 혹 만세운동으로 인해 조선공산당 조직이 궤멸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이기도 했지만 권오설이 대중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의 증진 인물이고, 학생운동계의 중심적 조직이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도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석홍, 앞의 논문, 1995, 310쪽)

활용을 통한 만세운동의 지방 확산의 역할을 맡았다.⁵⁵⁾

학생계 역시 이와 같은 사회 인사들의 연대와 일정하게 맥을 같이하며 만세운동에 동참해 갔다.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 학생들이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만세시위는 권오설과 밀접한 관계 위에서 추진되었다.⁵⁶⁾ 이때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맡았던 역할은 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서울에서의 만세시위를 선도하는 것이었다. 즉 6·10만세운동의 점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회원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해 갔고, 만세시위에 동원할 학생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통동계’와도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통동계’ 학생들은 3·1운동 정신의 계승과 식민지 사회의 민족모순을 자각하면서 자생적으로 시위를 계획했다. 계획추진 과정에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대를 이루게 되었고, 인산당일에 연합만세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⁵⁷⁾

이처럼 6·10만세운동은 조선공산당, 천도교, 학생층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정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연대 아래 계획·추진되었던 점에서 독립운동 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920년대 중반 통일전선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⁵⁸⁾

54) 천도교 진영은 이 무렵 신·구파의 분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고, 또 천도교 구파세력이 신파에 비해 열세였다고는 하지만, 천도교청년동맹을 거느린 천도교 구파의 조직 기반은 전국적이었으며, 세력 규모 민족세력 중에서는 여전히 유력한 것이었다.(조규태,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제9집, 1977, 52-58쪽)

55) 6·10만세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조선공산당과 천도교 세력의 연대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이들 주체가 이미 통일전선의 기반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56) 조직 내의 사회주의 계열 학생들이 주로 화요회와 연결된 경우가 많았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조선공산당의 지도력이 일정하게 관철되고 있었고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순종 승하 이후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내에서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때 권오설이 6·10만세운동 계획과 투쟁 지침을 알리는 한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임무와 역할을 지시하였다. (조선총독부경무국 극비문서, 『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 392-393쪽, 장석홍,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근대사론 2』, 1994, 217쪽 재인용)

57) 장석홍, 앞의 논문,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2000, 310-312쪽

즉 6·10만세운동이 통일전선운동의 흐름에서 계획·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운동에 참가한 세력들의 성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추진세력과 연대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진정한 역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복합적인 주체들의 연대와 결합을 종합적으로 서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교과서는 각기 3가지 방식으로 주체세력과 결합양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추진세력을 민족통일전선체로서 사회주의세력, 민족주의세력, 학생층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연대하여 운동을 추진했다고 서술한 경우이다. 그러나 세 계통의 추진세력을 내용에 포함했다고 해서 서술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경우, 서술 주체를 학생으로 설정하고 민족운동단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연대주체와 결합양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다. 대한 교과서의 경우, 순종 죽음을 계기로 추진세력들이 연대해서 운동을 계획했다고 서술해 순종 승하를 6·10만세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는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을 단순히 구왕조에 대한 민족적 감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파악하게 만들어 6·10만세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천재 교과서는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세력이 연대하였다고 서술해 6·10만세운동을 학생중심의 운동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금성 교과서는 추진세력을 일부 민족운동단체와 학생들이라고 서술해 일부 민족운동단체에 어떤 세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게 표현했다. 또한 그 가운데 사회주의세력의 계획이 발각되었다고 설명해 일부 민족운동단체의 결합양상의 연대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

58) 장석홍, 앞의 논문, 1995, 275쪽

둘째, 추진세력을 민족주의세력의 언급 없이 학생층, 사회주의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각기 따로 운동을 추진했다고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이다. 추진세력으로 사회주의세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의 주어를 학생으로 설정하여 서술하고, 각각 별도의 계획을 세웠다고 서술하여 6·10만세운동을 간접적, 직접적으로 학생중심의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세력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의 형태로 전개된 6·10만세운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언급 없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6·10만세운동을 추진했다고 서술한 경우는 6·10만세운동을 ‘학생운동’으로 협소하고 일면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물론 지도부의 계획이 발각된 이후 학생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면서 운동을 전개시켰나갔지만 지도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고 서술하는 것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는 당시 6·10만세운동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 했던 일제경찰문서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서술 방식이다.⁵⁹⁾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중학교 국사 교과서를 통해 6·10만세운동을 학생중심의 운동으로 이해한다. 또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검정교과서 6종을 통해 다양한 주체세력들을 살필 수 있지만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결합양상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 교과서만이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추진세력과 결

59)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세련’된 식민지통치를 선전하던 일제에게 6·10만세운동은 식민지통치의 모순을 극명하게 표출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일제의 철통같은 경계와 탄압 속에서 민족독립을 열망하는 한국인이 정치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사실에서 일제가 받은 충격은 3·1운동 때 못지않았다. 그리하여 일제는 6·10만세운동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애써 이 ‘사건’을 감상적인 학생들이 민족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으킨 것으로 매듭짓고자 하였다. 따라서 6·10만세운동의 역사상을 일제 경찰 및 재판 자료들에 의거해 구성하는 것은 일제가 축소, 은폐하려던 의도를 좇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장석홍, 앞의 논문, 1995, 107-108쪽)

합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측이 6·10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 인쇄했던 격문과 전단 등은 운동계획의 사전 발각으로 배포 직전 일제에 압수되고 말았다. 그러한 관계로 6·10만세운동 때 이들 격문은 배포되지 못한 채⁶⁰⁾ 만세시위 당일에는 일제의 검거망을 피한 학생들에 의해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때 학생들이 작성한 두 가지 짧은 격문만이 배포되었을 뿐이다.⁶¹⁾ 6·10만세운동 당시 작성된 격문이나 전단 등은 크고 작은 것들을 포함해 8종이 확인된다. 권오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는 대한독립당 명의의 「격고문」과 그 밖의 전단들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분위」, 「산업은 조선인분위」 등과 불꽃사 명의 「복상 통곡하는 민중에게 격함」,⁶²⁾ 그리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2개의 격문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교과서는 대한독립당 명의의 「격고문」과 4종의 전단, 통동계의 격문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각 격문에 대한 내용 분석과 교과서

60) 6·10만세운동의 격문이 배포되지 못한 사정으로 3·1운동의 격문과는 달리 주목받지 못했지만 6·10만세운동에 관류되고 있는 이념과 노선의 성격을 격문을 통하여 추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6·10만세운동의 격문들은 그 배포 여부를 떠나 추진 주체의 이념과 운동 노선을 살피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장석홍, 「6·10만세운동의 격문과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집, 1998, 157쪽)

61) 6·10만세운동 때 배포된 격문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격문과 통동계의 격문이 있다. 통동계의 격문은 후술하기로 하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격문은 다음과 같다. “2천만 동포야! 원수를 몰아내자! 피의 값은 자유이다. 대한독립만세!” 이 격문이 유난히 단문인 것은 당초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별도의 선전물을 작성하지 않고 지도부의 격문을 받아서 만세시위 때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지도부의 계획이 사전 발각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6월 8일 급히 격문을 작성, 인쇄했기 때문이다.(장석홍, 위의 논문, 167쪽)

62) 최초의 6·10만세운동 계획은 임시상해부(1차 조선공산당의 발각 이후 검거를 피한 일부 간부와 궁동순, 남만춘 등이 합세하면서 1926년 1월에 상해에서 조직한 조선공산당의 연락부)에서 김단야의 건의에 의해 추진되었다. 임시상해부는 만세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격문의 인쇄를 담당키로 하였는데 이 때 만들어진 격문이 불꽃사 명의의 격문이다. 이 격문은 안동에 5월 28일경 도착된 후 서울로 부쳐졌으나 조선공산당의 계획이 발각되는 것과 함께 국내의 인사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한 채 압수되고 말았다.(『동아일보』, 1926년 6월 8일, 장석홍, 앞의 논문, 1995, 110쪽, 재인용)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독립당 명의의 「격고문」은 크게 3가지 핵심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조선독립만세’ 등의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절대독립이 최고의 이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둘째, 민족적 대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의 결함을 한층 강고히 하여 평화적 요구를 더욱더 강력하게 내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2,300만 민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욱 단결하면 광폭한 총검도 무서울 것이 못된다(중략)식민지에 있어서는 민족해방이 곧 계급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 민족이 총체적으로 무산자계급이며 제국주의가 곧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당면한 적인 침략국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권리를 탈환하지 않으면 죽음의 땅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상적 설움만으로는 독립을 절대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민족적 단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식민지 민족을 총체적으로 무산자계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계급으로 규정하면서, 민족적·정치적 해방과 계급적·경제적 해방을 동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즉 격고문에서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분리하지 않은 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민족혁명을 위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이론적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격고문에서 보이는 정세인식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격고문의 논리는 우선 3·1운동 당시 선언서의 논리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서는 일본을 경제적 침략자로 규정할 안목을 갖지 못한 채, 정치적 침략주의·강권주의·제국주의 등으로만 인식하고 있었

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침략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략의 관점에서도 일제 식민지 지배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격고문의 논리는 3·1운동 때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논리에 비해 그 사상적 기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⁶³⁾ 3·1운동 이후 민족이론이 사회주의의 수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는 수준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한독립당 명의로 제작한 4종 전단의 핵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독립만세!!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일본인을 조선의 영역으로부터 구축하자!, 혁명적 민족운동자는 한 덩어리로 뭉치자!

(2)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일체 납세를 납부하지 말라!, 일본물화를 배척하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 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지 말라!, 일본인 교원에 교육을 받지 말라!,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 군대와 헌병을 철수하라!

(3) 조선인교육은 조선인분위!!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통학교용어를 조선어로!, 보통학교장을 조선인으로!, 대학은 조선인을 중심으로!

(4) 산업은 조선인분위로!!

-동양척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이민제를 철폐하라!

구호는 단문으로 되어 있지만 각기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단의 구성은 각 분야별로 정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의 「대한독립만세」는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절대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으

63) 일본인 학자인 矢内原忠雄은 6·10만세운동이 ‘문화정치’의 모순에 결과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3·1운동이 정치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6·10만세운동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矢内原忠雄, 「조선통치의 방침」, 『식민정책의 신기조』, 1927, 332-336쪽, 장석홍, 앞의 논문, 1995, 3쪽 재인용)

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식민지의 정치적인 문제인 독립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 민족운동자는 한 덩어리로 뭉치자!”라는 구호는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통일전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의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는 경제, 사회, 노동, 농민, 교육, 상업, 집회출판, 군사문제 등 식민지 사회 제 분야의 식민지 통치를 전면 부정하면서, 총독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의 「조선인교육은 조선인본위」에서는 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보통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당시 식민교육의 모순과 아울러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의 「산업은 조선인본위로」에서는 주로 농민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만세운동에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은 당시 식민지사회 전반에서 제기되던 당면과제들이 거의 망라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제기는 3·1운동과 비교할 때 이념의 다원화와 종합적, 심층적 성장에서 가능한 것이었다.⁶⁴⁾

앞서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 대한, 천재, 법문사 교과서는 대한독립당 명의의 격문과 4종의 전단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각기 격문에 대한 서술방식은 달랐다. 천재와 법문사 교과서는 지도부(대한독립당 명의)의 격문을 소개하면서 학생운동이라고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으로 학생들은 6·10만세운동의 격문을 보면서도 그 내용에 담긴 이념과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학생운동이라는 관점에 간혀 격문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반면 중앙, 대한 교과서는 3·1운동 때와 달라진 점을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이 격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전된 측면과 당시 식민지 사회모습의 실상과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추진세력의

64) 장석홍, 「6·10만세운동의 격문과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권, 1998. 12, 157-163쪽

양상을 이해하게 하였다.⁶⁵⁾ 즉 지도부의 격문과 전단을 소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함으로서 6·10만세운동이 민족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통동계의 격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

격문에 보이는 ‘자본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다”라는 인식을 표방한 것으로 본다면 ‘통동계’의 격문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⁶⁶⁾ 즉 대한독립당의 격문, 전단과 마찬가지로 ‘통동계’의 격문은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정치적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⁷⁾

두산, 금성, 중앙 교과서는 ‘통동계’의 격문을 실고 있다. 즉 학생들의 격문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학생들의 이념과 독립운동 상에서 차지했던 학생들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두산 교과서는 격문을 단순히 학생운동과 관련해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격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금성, 중앙 교과서는 3·1운동 이후 달라진 점

65) 대한 교과서는 1920년대 민족운동의 흐름과 함께 파악하게 함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66) 사회주의가 유입된 이후 초기의 사회주의 이념은 실질적으로 민족주의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독립당 명의의 「격고문」의 내용에도 나오는 ‘총체적 무산자론’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다. 즉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최우선 문제가 민족 독립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 총독정치의 타도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회운동 자체가 실천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념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홍석률, 앞의 논문, 264쪽)

67) 통동계의 이념적 성향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학생들과 그리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홍석률, 앞의 논문, 263쪽)

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념적 성향과 함께 당시의 민족운동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격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⁶⁸⁾ 검정교과서는 천재, 법문사, 두산 교과서를 통해 격문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학생운동이라는 관점에 간혀 격문에 담긴 이념을 파악할 수 없다. 중앙, 대한, 금성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6·10만세운동의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3. 민족운동사적 의의와 역사교육

6·10만세운동은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결합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형태로 추진된 것이다. 비록 이들의 계획이 사전 발각됨으로써 당초의 목표대로 6·10만세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10만세운동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각 주체들의 연대나 민족통일전선적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6·10만세운동은 민족혁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국내외 민족운동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6·10만세운동에 대한 첫 반응은 중국 상해에서 나타났다. 상해에 있는 혁명청년사는 1926년 7월 3일자 기관지 『혁명청년』 창간호에서 ‘6월운동의 경과와 소감’이라는 기사를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며, 이어 동년 7월 16일에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과 함께 김규식·송병조·이유필·정인교·강경선·최석순 등의 발기로 삼일당에서 6·10만세운동에 대한 연설회를 개최하였

68) 국정교과서 편제 상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탐구과제>의 형태로라도 격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다. 이때 연설회에는 상해 거주 한국인 약 2백 명이 모였으며, 이 자리에는 김 단야의 6·10만세운동에 대한 경과보고⁶⁹⁾에 이어 안창호는 6·10만세운동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민족운동은 멀리 갑오 동학당에서 발하여 이어 독립협회의 조직이 되었고 다시 3·1운동이 되어 널리 온 민족적으로 전개했고 이번 6.10운동과 같은 것은 전연 자각적으로 되어 나타났다. 고로 이 운동을 한층 유력한 것으로 만들려면 전민중의 중심이 될 통일기관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부의 쟁투를 그치고 공동의 적인 일본인과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창호는 6·10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통일기관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민족적 통일기관이란 주의와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대혁명당’을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안창호의 이와 같은 구상은 192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6·10만세운동이 그와 같은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당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세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국무령 홍진은 1926년 7월 8일 임시의정원 취임식에서 제시한 시정방침의 3대 강령⁷⁰⁾에서 민족대당의 조직을 천명함으로써 민족유일당운동의 깃발이 올랐다.⁷¹⁾

69) 김단야는 6·10만세운동을 천도교와 노동계의 조직이 조선공산당과 통일전선을 이루어 추진하였던 점과 ‘적화운동’이 아닌 순연한 민족적 독립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 무렵 상해에서는 6·10만세운동이 민족세력이 깊게 연대한 통일전선에 의해 전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장석홍, 앞의 논문,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2000, 314쪽)

70) 홍진의 시정방침 3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비타협적 자주독립의 신운동을 촉진할 것. 1. 전민족을 망라하여 공고한 당체를 조직할 것. 1. 전세계피압박민족과 연맹하여 협동전선을 조직하는 동시에 또 연락이 가능한 우방과 제휴할 것.(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2, 1967, 323쪽, 장석홍, 위의 논문, 315쪽 재인용)

71) 국외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은 임시정부가 이루지 못한 독립운동 노선의 통일전선을 각 독립운동 단체 스스로가 연합운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장석홍, 앞의 논문, 1995, 107쪽)

이렇듯 6·10만세운동에서 보여 준 민족통일전선의 의지는 상해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의 제창을 점화한 데 이어 한국독립유일당북경축성회(韓國獨立唯一黨北京促成會)⁷²⁾를 발족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관내의 민족유일당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공산당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6·10만세운동 직후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에서 1926년 7월에 발표한 ‘조선공산당선언’이다. 조선공산당선언에서는 6·10만세운동을 “3·1운동에 비하여 철저한 목적, 표어 및 투쟁 방침을 가지어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하는 민족혁명유일전선의 제작 상 확고한 첫 기초”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은 6·10만세운동이 1920년대 중반 민족운동 노선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6·10만세운동을 좌익운동도 우익운동도 아닌 유일전선이 이끈 민족운동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6·10만세운동에 대한 그와 같은 인식과 평가는 6·10만세운동의 기념하는 글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조직적 사적(史的) 발전으로서 조선민족해방운동 성공의 전제인 민족적 유일전선 제작상(製作上) 확고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6·10운동 이후 민족유일전선은 구체화하고 내외 공히 완성의 역에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해방투쟁이 일로 전진하고 또 운동이 신단계에 나아간 것이다.⁷³⁾

72) 안창호는 상해에서의 민족대당의 제창 이후 1926년 8월과 9월에 북경의 유력자이며 좌익세력의 대표인 원세훈을 만나 대동단결을 거듭 촉구해 갔다. 그리고 이들은 축성회의 결성에 대하여 각지에 먼저 세포조직을 설치한 후 그를 통하여 대독립당을 결성하는 방법에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10월 10일부터 3차에 걸친 회합을 갖고 10월 16일 선언서를 발표하고 장건상, 원세훈, 조성환, 조남승, 배천택, 감광천, 박건병을 집행 위원으로 하는 한국독립유일당북경축성회를 조직하였다.(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1934, 110-111쪽, 장석홍, 위의 논문, 315쪽 재인용)

73) 『6·10만세운동 2주기기념문』, 화염사, 1928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30, 537-538쪽 재인용)

6·10만세운동의 2주기를 기념하는 위의 글에서는 6·10만세운동을 3·1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발전적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전적 의미란 사회·정치 이념을 초월하여 각 세력들이 연합하여 이룩한 통일전선에 비중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6·10만세운동 10주기에 발표된 다음의 글은 그와 같은 6·10만세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들은 그것으로써 조선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뿌리를 빼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민족유일전선의 시도를 깨트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육십사건의 근본정신, 즉 민족유일전선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더욱이 1926~27년 중국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민족유일전선의 요구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요구로 변하여졌다. 1927년 초부터 조직 전개된 신간회운동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민족유일전선을 표현하는 운동이었다.⁷⁴⁾

6·10만세운동이 크게 번지지 못하였지만 민족통일전선에 의한 정신은 민족세력에게 광범하게 확산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국공합작이라는 외적 환경과 더불어 민족통일전선운동의 흐름은 중국 관내에서는 민족유일당운동으로 국내에서는 신간회로 계승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민족통일전선을 이루어 추진한 6·10만세운동은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통일전선의 발전 선상에서 파악할 때, 조선공산당에서 구상한 ‘국민당’계획과 또한 6·10만세운동의 추진체로서 성립된 대한독립당과 같은 민족통일전선의 지향은 곧 신간회 성립으로 일정하게 관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10만세운동 직후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권동진·이종린·박래홍 등 천도교 구파 인사들이 신간회 창립

74) 「六십(六월십일)만세十주년을 마즈면서」, 『앞으로』 3-4(6), 1936년, 82-83쪽(장석홍, 위의 논문, 318쪽 재인용)

에 적극 참가하는 것과 아울러 천도교청년동맹이 신간회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6·10만세운동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⁵⁾

6·10만세운동은 학생운동의 고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3·1운동 때 학생계의 위상은 전위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3·1운동이후 독자적 학생운동을 조직하고 사회주의세력의 학생운동단체가 등장하는 등 일정하게 발전해갔다. 그러나 6·10만세운동 당시의 학생운동 조직은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는데 그쳤다. 6·10만세운동에서 학생이 독자적 운동 주체로 부상하면서, 학생운동 조직은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동맹휴학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 성격을 달리 했다.⁷⁶⁾ 그리고 1927, 1928년에 비밀결사 독서회 등이 확산되면서 학생운동은 국내 독립운동의 중심적 위치로 부상해 갔다.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은 그와 같은 경험과 배경에서 전국적 민족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⁷⁷⁾

이렇듯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민족통일전선을 이루어 추진된 6·10만세운동은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성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학생운동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즉 6·10만세운동은 민족통일전선운동과 학생운동의 시대라고 성격 지을 수 있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의 의의에 대해 서술할 때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75) 장석홍, 앞의 논문,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2000, 312-319쪽

76) 6·10만세운동 이전의 동맹휴학은 대체로 실력양성운동에 발맞추어 온건한 성격으로 일제의 식민지 교육, 특히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 및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모욕적 언사에 집중적인 화살을 돌려 학원내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6·10만세운동 이후에는 한 학교, 한 개인 상대의 동맹휴학보다는 식민지 교육,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민족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맹휴학의 성격이 변하였다.(김호일, 앞의 책, 97-98쪽)

77) 장석홍, 위의 논문, 110-111쪽

성립에 매개가 된 사건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학생운동의 발전적 측면에서의 의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민족유일당운동이 왜 등장했으며 신간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지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서 학생운동의 발전을 독자적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고찰하고 시대적 변화와 조응하면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는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성립의 매개가 된 사건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학생운동의 발전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모두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의미와 학생운동의 발전 측면에서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못하게 만든다. 더구나 금성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학습목표에 6·10만세운동을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학습할 수 없게 사고의 범위를 설정해 버리고 있다. 이로써 6·10만세운동에 대해 학습할 때 처음부터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본연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학습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6·10만세운동을 학생운동으로 이해함으로써⁷⁸⁾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흐름상에서의 진정한 의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6·10만세운동은 ‘자치운동 → 민족통일전선형성 → 6·10만세운동 → 민족유일당운동 → 신간회창립 →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상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민족통일전

78) 학습목표와 의의에 대한 서술만을 비교했을 때 중·고 국사, 대한, 천재, 법문사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을 학생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산, 중앙, 금성 교과서는 부분적으로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서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의미파악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체로서의 6·10만세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6·10만세운동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 위주로 역사를 파악하여 단순 암기 학습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역사교과 목표가 역사적 사고력 함양에 있는 만큼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⁷⁹⁾

실제 역사 수업에서 내용 선정과 조직의 토대가 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그러나 수업내용은 교과서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교사들이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10만세운동에 관해 수업을 할 때 교사는 6·10만세운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업 시수에 비해 교과서의 내용 분량이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6·10만세운동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져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수업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6·10만세운동에 대해 교과서의 내용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6·10만세운동의 격문을 자료로서 활용해 6·10만세운동에 대해 교수하는 것이다. 즉 격문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의 배경, 추진세력의 이념·성격, 역사적 의의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수업방식이다. 이는 수업시수를 고려한 대안적 방법이기도 하며 역사적 사고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중시하는 방법으로서도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수정 7차 교육과정이 구성주의 학

79) 김한중 외, 『역사인식과 역사교육』, 책과 함께, 2007, 32-38쪽

습이론을 기반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⁸⁰⁾

둘째, 수업 시수를 고려해 교과서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즉 1920년 국내 민족운동의 사건이나 흐름을 역사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력양성운동, 사회주의 운동, 자치운동, 6·10만세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신간회 창립, 광주학생운동을 사건별로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역사적 이해’라는 주제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배경과 전개,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피고 그와 함께 학생운동이 어떠한 위치에서 발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교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요목은 수업시수와 교수내용의 양을 고려해 수업 시수별로 알맞게 나누어 교수해야 한다. 이는 역사 학습의 가장 큰 문제인 단순 암기위주의 수업을 지양하는 것이며 6·10만세운동을 비롯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수업을 맥락적 역사학습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80) 박숙희·염명숙, 『교수·학습과 교육 공학』, 학지사, 2007, 58-68쪽

IV. 결 론

1926년 6월 10일 발생한 6·10만세운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으로 주목된다. 첫째, 6·10만세운동을 분수령으로 민족통일전선운동이 민족유일당운동으로 발전되고 학생운동이 전국적, 조직적으로 발전되었듯 6·10만세운동이 민족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민족통일전선체로 추진된 6·10만세운동이 민족통일전선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신간회 중심의 192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까지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국사로부터 분리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와 같은 여건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검정교과서도 위에서 언급한 6·10만세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의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 선정과 서술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6·10만세운동의 추진배경에 관한 문제이다. 6·10만세운동은 코민테른의 통일전선정책, 중국의 국공합작의 영향 아래 자치운동의 등장으로 민족연합이 모색되어 일어났다. 또한 3·1운동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온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라 많은 사회주의 사상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해 갔다. 가장 대표적인 사상단체이자 6·10만세운동의 연계세력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등장과 이러한 학생운동계의 변화는 6·10만세운동의 중요한 추진배경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천재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이

러한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아 6·10만세운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추진주체와 이념에 관한 문제이다. 6·10만세운동은 조선공산당, 천도교 구파,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이 연합하여 일으킨 운동이다. 이러한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추진주체에 대한 이념은 6·10만세운동 때 만들어진 격문에 잘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6·10만세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소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앙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추진세력이나 격문에 대한 서술이 저마다 다르고 혹은 학생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국정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의 격문을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과서 편제 상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핵심 내용이라도 포함해 6·10만세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서술도 문제이다. 6·10만세운동은 민족통일전선운동의 형태로 추진된 운동으로 이후 민족유일당운동의 첫 걸음이 되었고 신간회 결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6·10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이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발전하여 민족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교과서는 없다. 두산 교과서가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의의를 서술하고 있지만 신간회 결성에 대한 영향과 학생운동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고 그 외의 모든 교과서는 추상적으로 평가하거나 학생운동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목표, 추진배경, 추진세력, 이념, 의의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않아 운동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존 교과서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학생들이 6·10만세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6·10만세운

동”을 올바르게 학습하고 교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 서술 개선과 대안적인 수업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6·10만세운동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동향에 대해 계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실력양성운동·사회주의운동의 양상과 자치운동의 등장을 계기적으로 서술하고 3·1운동 이후 발전해 온 학생운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로의 이념적 변화와 함께 조선 학생과학연구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둘째, 6·10만세운동의 추진세력과 격문 설명, 역사적 의의를 서술할 때 반공 이념이나 민족주의 사관에 따라 편향되지 않게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 서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6·10만세운동에 대한 학습목표, 추진배경, 주체, 이념, 의의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을 실력양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전개 → 자치운동의 등장 → 민족통일전선형성 → 6·10만세운동 → 민족유일당운동 → 신간회창립 → 광주학생운동을 계기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는 교과서를 있는 그대로 교수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 상황의 여건과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업해야 한다. 특히, 수정 7차 교육과정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만큼 설명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고력 증진을 위한 수업이 요구된다. 이에 6·10만세운동의 격문을 자료로 활용하여 운동의 실상을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활동에 의해 파악해가는 수업방식과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을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교수요목을 구성하여 수업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및 연계도서

-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8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8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4.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8.
- 김중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8.
-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8.
-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8.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8.
- 편집부 편,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8.

2. 연구논저

- 강만길,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의 통일전선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12집, 1993
- 김인덕,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 『순국』 128, 1989
- 김인덕, 「6·10만세운동의 매개가 된 순종의 죽음」, 『순국』 130, 1989
- 김인식, 「식민지시기 안재홍의 좌익 민족주의운동론」, 『백산학보』 43호, 1994
-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7
- 김한중,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5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 김호일, 『일제하 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 박숙희·염명숙 공저,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학지사, 2007
- 박찬승, 「일제하의 자치운동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1989
-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조선공산당 창립과정」, 『승실사학』 8, 1994
- 신용하, 「신간회의 창립과 민족운동과 해소」, 『한민족독립운동사』 8, 1990
- 신용하, 「한국 국내 민족독립운동의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4
- 윤경로, 「6·10만세운동의 배경」, 『순국』 128, 1987
-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10항일시위운동」, 『역사비평』, 1989년 봄호
- 이균영,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권, 1994
- 이만열, 「일제하의 문화운동」, 『한국현대사의 제문제』 2, 을유문화사, 1987
- 이명화, 「민립대학설립운동의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집, 1999
-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 현실』 28, 1998
-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변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 장석홍, 『6·10만세운동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장석홍, 「천도교 구파의 6·10만세운동」, 『복약사론』 제4집, 국민대 국사학과, 1997
- 장석홍, 「6·10만세운동과 통일전선운동」, 『국사관논총』 90집, 2000. 6
- 장석홍, 「6·10만세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순국』 113호, 2000. 6
- 장석홍, 「1920년대 후반 국내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의 역할」, 『역사』 18호, 1999
- 장석홍,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근대사론』 2, 1994. 12
- 장석홍, 「통일전선운동의 첫 제작인 6·10만세운동의 역사상을 바로 세우자」, 『내일을 여는 역사』 제2호, 2003

- 장석홍, 「융희황제 인산 전후 지방의 동향과 만세시위」, 『한국학 논총』 20, 1994
- 장석홍, 「6·10만세운동의 격문과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권, 1998
- 조규태,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제9집, 1977
- 진덕규, 「1920년대 사회주의 민족운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조선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집, 1994
- 최기영, 「3·1만세시위와 고종의 죽음」, 『순국』 130, 1990
- 표영삼, 「6·10만세와 천도교」 (상·하), 『신인간』 510-511호, 1992
-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07
- 한상록, 「1926~28년 민족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집, 1994. 9
- 홍석률, 「일제강점기 항일학생운동의 이념 변화」, 『나라사랑 독립정신』, 2005

ABSTRACT

A Descriptive Study on '6.10 Cheer Movement' in the 7th Curriculum Textbook

Eun Ju, Choi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6.10 Cheer Movement has been understood as a student-centric movement, since students led the unfolding of the demonstration after the plan by Chosun Communist Party and the Old Side of the Cheondo religion was caught. Such perspective is also reflected on current textbooks. Namely, they describe 6.10 Cheer Movement from a perspective of student movement. However, this is not a correct evaluation of the historic meaning of 6.10 Cheer Movement as the subject of national unification front.

The Korean national movement in the 1920s was pointing to national unification front. This was a common demand of national movement force from whether nationalists or socialists, and the appearance of national unification front policy of Comintern, Kuomintang-Communist Collaboration of China and the movement for self-government worked as a factor of mustering the strength of national unification front. 6.10

Cheer Movement, which occurred in this environment, was a national unification front in action, and later had an importanc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ingle party movement and Shin-gan-hoei, a national movement association formed in 1927.

It was in the 1960s that 6.10 Cheer Movement began to be treated in the student movement category in the academic world. In former times, 6.10 Cheer Movement was recognized by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 as a movement that unfolded as a national unification front led by the socialist order. This changed when 6.10 Cheer Movement began to be understood as a nationalistic student movement by reflecting an anticommunistic perspective as the division of Korea into south and north became settled in. Afterwards, it continued to be examined from a student movement level, and, study results that value the solidarity of those who propelled the movement came out after the 1990s, and, in recent, study results came out that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aspect of solidarity of each subject and connect with the national single party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hin-gan-hoei as the national unification front.

The current 7th Curriculum national textbooks (Middle School History, High School History) and the textbook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contain a few problems in the selection of concrete contents and the method of descrip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many study results came out in the academic world.

First, descriptions of the self movement, which the main background for propelling 6.10 Cheer Movement, are either omitted or insufficient. Second, the descriptions of the unity aspect of the propelling force of 6.10 Cheer Movement are insufficient or distorted. Third, the descriptions of the ideology and historical meaning of 6.10 Cheer Movement are student centric.

The biggest problem is the fact that the study objective that precedes the main lesson describes 6.10 Cheer Movement as a student centric movement. This will lead to incorrect study results withou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real historical meaning resulting from approaching with a narrow-minded perspective when studying 6.10 Cheer Movement.

Therefore, the textbooks must organically describe the trend of domestic national movement in 1920s before the start of 6.10 Cheer Movement, and comprehensively describe the propelling force and the ideology of the movement. Only through these descriptions,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national movement meaning of 6.10 Cheer Movement.